

보도시점 2024. 3. 26.(화) 15:00 배포 2024. 3. 26.(화) 13: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 - 지자체·민간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지역투자 본격화 -

- 최상목 부총리, 행안부·금융위·산업은행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
- 금년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로 3조원 규모 지역투자 창출 효과
- “1호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경북 구미 국가산단 고도화」 선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3.26일(화) 15:00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개최하여 출범 의의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지자체들의 추진사례를 공유하였다.

이 행사는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14개 광역지자체와 더불어 유관기관, 금융·산업계 및 학계 주요인사를 포함한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요 >

- (일시/장소) 2024년 3월 26일(화) 15:00~16:30 /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
- (참석자)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금융·산업계, 학계 등 약 700명
- (주요내용) ①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주제발표 및 토론
②지자체별 추진사례 발표(경북, 충북, 충남, 전남)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그간 재정의존도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자체가 원하는 어떠한 유형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도 규모 제한 없이 빠른 속도로 안정감있게 추진 가능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수시·신속 심사, 중앙정부 규제개선, 지자체 인·허가 단축 등과 함께 빠른 속도로 추진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대출 특례보증을 통해 안정성도 확보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 운용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프로젝트 신청을 거쳐 펀드 지원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지방시대를 맞아 “중앙재정을 짊어 나눠갖는 소규모·단발적 투자”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대규모 융복합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안착·성장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한국성장금융에서 승인한 “1호 프로젝트” 2건을 소개했다. ①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1,133억원 규모)와 ②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원 규모)가 모펀드 승인을 거쳐 1호 프로젝트로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3,300억원 규모의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 1조4천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 다양한 후보들이 펀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며,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펀드를 기회로 삼아 획기적인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주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하면서, “오늘 소개되는 투자사업이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성공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축사에서 지방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약화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서 민간과 협업하여 지역사업을 발굴·계획하고 민간금융기관이 수익성·지속가능성을 검증·보강한다면 성공적인 지역개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세션① 주제발표 및 토론】

첫 번째 세션으로 모펀드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의 주제발표와 함께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배영운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의 토론발언도 이어졌다.

김상기 박사는 그간 지역개발을 위해 이뤄졌던 국비 보조사업, 민간 투자사업, 지방재정 투자사업 등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보완하여, 지자체와 민간이 어떠한 제약없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가능하게 한 것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출범 의의라고 평가하며, 향후 펀드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세 주체간 긴밀한 협업을 당부하였다.

먼저, 이형주 상임위원은 우리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요한 전제인 민간 주도의 엄격한 사업성 심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병태 사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내실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전용 대출 특례보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영운 사장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간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들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아울러, 금융계에서도 그간의 투자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프로젝트 설계, 수익성 검증·보강 등의 역할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세션② 프로젝트 추진사례 발표】

두 번째 세션으로 4개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사례에 대한 발표도 이루어졌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명규 충북 경제부지사는 각각 이번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와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하였고,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도 펀드 신청을 준비 중인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와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 사례를 직접 소개하였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금번 출범식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대상 교육·컨설팅, 지자체-민간 간 매칭데이, 금융·산업계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펀드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늘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이어 건설투자와 기업투자 부문에서도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제거하는 입체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발표함으로써, 투자가 견인하는 내수·수출 균형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역활성화투자팀	책임자	팀 장	최진광	(044-215-7494)
		담당자	사무관	정혁주	(044-215-7492)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박진석	(044-205-3501)
		담당자	사무관	김형균	(044-205-3412)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남동우	(02-2100-2873)
		담당자	사무관	김기태	(02-2100-2861)
	한국산업은행 정책펀드금융실	책임자	실 장	김사남	(02-787-5451)
		담당자	팀 장	최원재	(02-787-5451)

1. (1호) 충북 단양,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 (위치) 단양군 단양읍 (단양역 일원) 15,682평
- (참여 지자체) 충청북도, 단양군
- (투자기간) '24 ~ '26년(준공)

□ [프로젝트 내용] 단양역(新 중앙선) 역세권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으로 폐철도부지 및 주변 관광시설 연계한 호텔·어드벤처시설 개발

- 케이블카(1km), 미디어아트터널(1km), 어드벤처시설

□ [기대효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추가 유입과 고용 확대를 통한 체류인구 증가로 지역 상생발전

- 연간 98만명의 관광객 유입 기대로 단양군 관광산업 활성화
- 개발 후 체류인구* 증가(54.9천명, 22.7%)로 지역 소멸위기 극복

* 특정지역에 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방문자

- 지역주민 우선고용(150명) 및 로컬마켓 운영으로 상생발전 실현

참고 2

「구미 1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프로젝트 주요 내용

2. (2호) 경북 구미,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 **[사업내용]** 구미 1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 주거시설(오피스텔) 공급
 - 노후도가 심한 20~30평대 아파트 위주로 청년 근로자를 위한 1인 주거시설이 부족하여 신규 근로자 유인에 애로
 - 총 506실 규모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지하3층 ~ 지상12층)



- **[부 지]** 구미시 공단동 256-16번지 외 (2,754평)
- **[기대효과]**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주변상권 활성화 및 개발수요 유도
 - 총 2조원의 구미 국가산단 기업투자(217개사) 유치와 더불어 산단 내 청년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첨단산단 전환의 첫 신호탄 역할
- **[기대효과]** 국가산단 내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지원하여 추가투자과 개발수요 자극

* 수도권 소재기업 38.8%는 '필요한 인력공급'이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선택, 이 중 47%는 '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이 필요하다고 응답
(대한상의·산업연구원 공동,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의향조사, '23년)

보도시점 2024. 9. 12.(목) 07:30 배포 2024. 9. 11.(수) 14: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3호 프로젝트 선정

- 총사업비 1.4조원 규모의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프로젝트
- 관계부처·기관간 밀접한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뒷받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12(목)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이 선정되었음을 발표하였다.

금년 첫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 *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 운용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프로젝트 신청을 거쳐 펀드 지원 승인 여부를 심사 중

지난 3.26일 천안시청에서 개최된 펀드 출범식을 통해 최상목 부총리는 2건의 1호 프로젝트* 선정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행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후보 프로젝트였던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소개하면서 올해 안에 펀드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1,133억원 규모),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1,239억원 규모)

정부는 금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3호 프로젝트 지자체 출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면제까지 추진하여, 지자체 출자 소요기간을 당초 12개월에서 4개월로 8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출자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동 프로젝트가 목표대로 '27.12월에 준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지자체(광역+기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 경영 모니터링 등 목적으로 자본금(총사업비의 10% 이상)의 8% 이상을 출자
- **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3호 프로젝트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은 총사업비 1조 4,362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수입한 LNG를 부두시설을 통해 수송선에서 바로 하역하여 탱크에 저장한 후, 기화 상태로 전환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인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연간 300만톤의 대규모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27.12월 준공 및 운영개시가 목표이며, 1.3만명의 고용유발 및 2.8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LNG 터미널 착수를 기반으로 총 15.5조원 규모의 연 관 프로젝트인 「에코 에너지 허브」를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 클러스터, 그 린 에너지 사업,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 허브 조성 등을 세부내용으로 하며, 탄소중립이 절실한 여수·광양만권에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 3호 프로젝트 선정의 의의 】

첫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도입 취지대로 규모 제한없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1호 프로젝트들은 1천억원대 규모이지만, 금번 3호 프로젝트는 1조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또한, 1호 프로젝트는 각각 관광과 산업단지가 테마였으며, 3호 프로젝트는 에너지가 테마이다.

둘째, 현재까지 비수도권 내에서도 지방소멸 위기 지자체 위주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가 선정되고 있다. 1호 프로젝트 대상지인 충북 단양은 인구감소지역이며, 3호 프로젝트 대상지인 전남 여수 또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다. 이는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지자체에서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경제성이 입증되는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

셋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다수의 관계부처·기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협업 정책이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 지자체 대상 밀착 컨설팅, 재정투자심사 단축 또는 면제, 전용 대출 특례보증 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기관이 더욱 밀접하게 협업하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지속 성장시킬 계획이다.

3. (3호)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 [개요] 연간 300만톤 규모의 LNG*를 여수 광양 국가산단에 공급하기 위한 접안시설, LNG저장탱크 및 기화설비 등 구축

* LNG(Liquefied Natural Gas) :기체상태의 천연가스를 수월하게 운반·저장하도록 액화(-162℃)한 형태

- 수입한 LNG를 부두에 바로 하역하여 탱크에 보관한 후, 기체 상태로 가공하여 인근 수요자에게 배관을 통해 송출



시 설	상세내용
① 접안시설	· 10만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대형선박 접안가능
② 하역설비	· Unloading Arm: 수송선과 지상의 배관을 연결 · Vapor Return Arm: 하역 과정에서 기화된 증기를 회수
③ 저장시설	· 20만kl 용량의 탱크 3기(1~3호)로 구성 (추후 1기 증설) · 초저온 액체인 LNG를 외부 열 유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수콘크리트 및 보냉재로 제작
④ 기화설비	· ORV(Open Rack Vaporizer) 140t/h: 해수의 열을 흡수해 시간당 420t(140t×3기)의 LNG 기화 · SCV(Submerged Combustion Vaporizer) 140t/h: 가스를 연소시켜 얻은 열로 시간당 140t의 LNG 기화
⑤ 송출용 고압펌프	· 고압펌프를 활용하여 시간당 560t(140t×4기)의 가스를 배관으로 송출

□ **[총사업비]** 1조 4,362억원

□ **[건설기간]** '24.9월 ~ '27.12월 (탱크 1, 2호 기준)

* 탱크 3호는 '28.12월 준공

□ **[기대효과]** 인근 산단에 대한 안정적인 LNG 공급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관 산업 발전의 토대 마련

- 다수의 철강·화학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연간 300만톤의 대규모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
- 1.3만명 규모 고용유발 및 2.8조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와
지방세,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연평균 242억원 지방수입 예상
- 전남도는 금번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총사업비 15.5조원 규모의
「에코 에너지 허브」로 확장할 계획

※ <참고> 「에코 에너지 허브」 조성 사업 (전라남도)

☞ 탄소중립이 절실한 여수·광양만권에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 도모

① (에너지 클러스터) 수소·암모니아 터미널, CCUS* 설비 등

*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

② (그린 에너지 사업) 천연가스·수소 혼소발전, 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

③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 허브) LNG 거래소, LNG 냉열이용사업,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 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4호 프로젝트 선정

- 총사업비 7,716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107.9MW)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인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 제1~3호 프로젝트들도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 중

【 제4호 프로젝트 선정 개요 】

금년 1월에 첫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네 번째 프로젝트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총사업비 7,716억원)가 선정되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 및 위험분담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규제완화, 전용 대출 특례보증, 신속한 인·허가 등이 투자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내년에도 3,000억원 규모의 추가 모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 *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 운용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프로젝트 신청을 거쳐 펀드 지원 승인 여부를 심사 중

지난 3.26일 펀드 출범식을 통해 2건의 제1호 프로젝트* 선정을 처음 발표하였고, 이어서 9.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3호 프로젝트** 선정을 발표한 이후에 약 2개월만에 제4호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 *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1,133억원 규모),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1,239억원 규모)

- **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1조 4,362억원 규모)

【 제4호 프로젝트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제4호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7,716억원을 투입하여 경북 경주시 강동일반산업단지 내에 국내 최대 107.9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내용으로, 4인 기준 약 27만 가구에 일년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간 뒤, 3년 후인 '28.3월에 준공되어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 (수소연료전지 발전) 천연가스를 개질(改質, reforming)하여 수소를 생산한 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금번 제4호 프로젝트로 인근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관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근 산단인 포항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와 블루밸리 산업단지는 그간 전력이 부족해 이미 계획된 투자들이 지연 중인 상황인데, 동 발전소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어 산단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더불어, 건설기간 고용효과(1,200명), 법인세 수입(733억원, 지방세 포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104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많은 전력이 소비되는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 연계 산업에 대한 투자수요도 촉진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금번 국내 최대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토대로 중요 도정으로 추진 중인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 그간 제1~3호 프로젝트 추진동향 】

한편, 지자체들에 따르면, 제1호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와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및 제3호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모두 모펀드 선정 이후의 후속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3개 프로젝트 모두 민간투자 유치까지 완료하여, 모펀드 투자액과 함께 자펀드를 결성하였다. 아울러, 대출 대주단 모집까지 조속히 완료하여, 3개 프로젝트 모두 연내에 착공이 개시될 예정이다. 이 중 제3호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프로젝트는 이미 10.4일에 착공되었다.

【 향후 정책방향 】

정부는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의지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한 3천억원 규모의 모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가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 추진 프로젝트 컨설팅 동향에 따르면, 금년 조성된 모펀드는 투자 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25년 모펀드 조성 이전에 모두 조기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더욱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문성 있는 위탁 컨설팅·교육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한층 더 수요자 니즈에 맞춤형인 프로젝트 컨설팅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역활성화투자팀	책임자	팀 장	최진광	(044-215-7494)
		담당자	전문관	인동우	(044-215-7493)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전문관	하대륜	(044-215-7383)
			과 장	허남석	(044-205-3501)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사무관	강경국	(044-205-3522)
			과 장	권유이	(02-2100-2860)
	한국산업은행 정책펀드금융실	책임자	사무관	김기태	(02-2100-2861)
			실 장	김사남	(02-787-5451)
	경상북도 민자활성화과	책임자	팀 장	최원재	(02-787-5454)
			과 장	홍인기	(054-880-3460)
	충청북도 투자유치과	책임자	팀 장	이하녕	(054-880-3471)
			과 장	김두환	(043-220-3310)
	전라남도 에너지정책과	책임자	팀 장	김기완	(043-220-3321)
			과 장	강창구	(061-286-7210)
		담당자	팀 장	조영진	(061-286-7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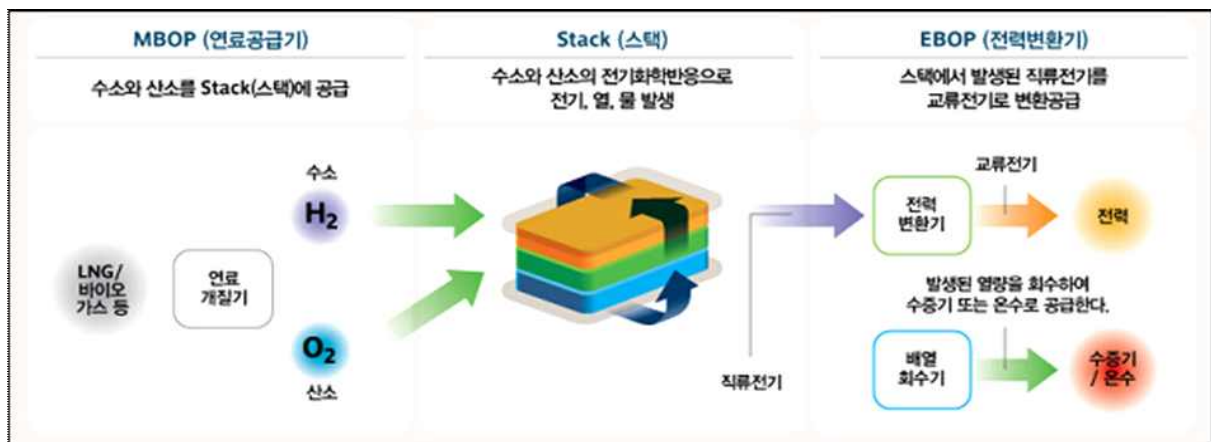
4. (4호) 경북 경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 [개요] 경북 경주시 강동일반산업단지 내 107.9MW(국내 최대)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 330KW 규모 연료전지 327대 설치 → 연간 약 27만 가구(4인가족 기준)에 전력 공급 가능

-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천연가스를 개질(改質, reforming)하여 수소를 생산한 후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력 생산

【 수소연료전지 발전 원리 】



주요설비	상세내용
MBOP (연료공급기)	· Mechanical Balance of Plant · 가스 처리(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수소 생산), 열 관리, 산소 공급, 수분 관리 등 연료전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Stack (스택)	· 셀(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판, 냉각시스템 등으로 구성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생산
EBOP (전력변환기)	· Electrical Balance of Plant · 스택을 통해 생산된 직류전기(DC)를 교류전기(AC)로 변환

- [총사업비] 7,716억원

- [건설기간] '25.3월 ~ '28.3월

□ **[기대효과]**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관산업 발전의 토대 마련

- 전력이 부족해 이미 계획된 투자들이 지연 중인 포항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블루밸리 산업단지 등 인근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 건설기간 고용효과(1,200명), 법인세 수입(733억원, 지방세 포함) 등과 더불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104억원)*을 활용한 추가 지역활성화 사업 가능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설치지역 반경 5km 내
지역에 정부지원금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 가능
- 또한, 많은 전력이 소비되는 업종인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과
연계된 투자수요 자극
- 경상북도는 금번 국내 최대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토대로,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참고>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계획」(경상북도)

☞ 글로벌 무탄소경제를 선도하고 에너지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급, 수요, 산업, 사회 분야 7대 전략사업과 21개 실행과제 추진 발표

- ① **(청정수소)** 청정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 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원전
수소 산업혁신 R&D기반 조성
- ②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운영, 경북형 에너지공유 플랫폼
구축, 신규 양수발전 건설
- ③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융복합지원센터 건립·운영, 수상·산단 태양광 집적화
단지 조성, 동해안 풍력발전단지 조성
- ④ **(에너지고속도로)**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동해안 해저 전력망 구축, 데이터센터 유치
- ⑤ **(원자력산업 생태계)** 국가산업단지 조성(SMR, 원자력수소), SMR 스마트 넷제로
시티 조성, 원전해체 산업육성
- ⑥ **(차세대원자로)** 글로벌 혁신원자력 연구기반 조성, 용융염원자로(MSR) 기술
개발 실증, SMR 소부장 기반 구축
- ⑦ **(에너지항만)** 에너지 생산 플랜트 구축, 탄소중립항만 인프라 구축, 글로벌
인수기지 구축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5호 프로젝트 선정

- 총사업비 1,300억원을 투입하여 단일규모 국내최대(4.6만평, 15.2ha) 스마트팜을 건설하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1단계」 프로젝트
- 제5호 프로젝트 선정으로 '24년도 모펀드 소진율은 85.8%에 도달했으며, 내년도 모펀드 조성 전까지 전액 소진예정
- '25년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모펀드는 금년과 동일한 3,000억원 규모로 차질없이 조성 중

【 제5호 프로젝트 선정 개요 】

금년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다섯 번째 프로젝트로 대규모 스마트팜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1단계」(총사업비 1,300억원)가 선정되었다.

< 1~4호 프로젝트 내역 >

- (1호)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1,133억원 규모)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1,239억원 규모)
- (3호)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1조 4,362억원 규모)
- (4호)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7,716억원 규모)

특히, 올해 3.26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서 전남지사와 충남지사가 직접 후보 프로젝트로 소개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과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가 각각 지난 3호 및 금번 5호로 실제 선정된 것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증명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 및 위험분담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규제완화, 전용 대출 특례보증, 신속한 인·허가 등이 투자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내년에도 3,000억원 규모의 추가 모펀드를 조성 중이다.

- *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 운용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프로젝트 신청을 거쳐 펀드 지원 승인 여부를 심사 중

【 제5호 프로젝트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제5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1단계」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1,300억원을 투입하여 충남 서산시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원에 단일시설 기준으로 국내 최대 스마트팜 단지(4.6만평, 15.2ha, 축구장 15개 크기)를 건설한다. 내년 3월 착공하여 같은 해 7월에 준공한 뒤, 약 4개월 재배기간을 거쳐 바로 11월부터 수확*할 예정이다.

- * 연간 방울토마토 199만kg, 완숙토마토 395만kg 생산

스마트팜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작업을 최적화·정밀화·자동화하여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농업방식이다. 본 프로젝트는 ICT 기술을 도입하여, 작물의 생육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최적화된 환경 조건(온도, 습도 등)을 정밀장비(LED조명, 관개시스템 등)로 유지한다. 전통 농업방식과 달리 기후환경에 따른 생산량 및 품질 변동성을 해결했기 때문에, 수요기업과 장기로 고정가격 납품 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구축했다.

금번 프로젝트 선정을 통해 그간 1~4호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관광, 산업단지, 에너지 이외에 농업 분야에서도 수익성을 갖춘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충청남도는 금번 스마트팜(생산시설) 프로젝트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1단계」를 시작으로,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가공·유통·R&D시설 및 관광·주거·교육시설까지 갖춘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2단계」를 '27년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이다. 2단계까지 완성되면 총 규모 18.5만평(61.4ha)의 완결된 스마트팜 산업 생태계(Ecosystem)를 갖춘 종합 콤플렉스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 '25년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모펀드 조성 】

'24년도 모펀드는 투자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1년 만에 펀드소진율이 85.8%에 도달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25년도 국회 예산안 확정 이후 금년과 동일한 3,000억원 규모의 신규 모펀드 조성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신규 모펀드는 내년 4월 중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역활성화투자팀	책임자	팀 장	최진광	(044-215-7494)
		담당자	전문관	하대륜	(044-215-7383)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허남석	(044-205-3501)
		담당자	사무관	강경국	(044-205-3522)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김기태	(02-2100-2861)
	한국산업은행 정책펀드금융실	책임자	실 장	김사남	(02-787-5451)
		담당자	팀 장	최원재	(02-787-5454)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책임자	과 장	장인동	(041-635-2520)
		담당자	팀 장	유혜경	(041-635-4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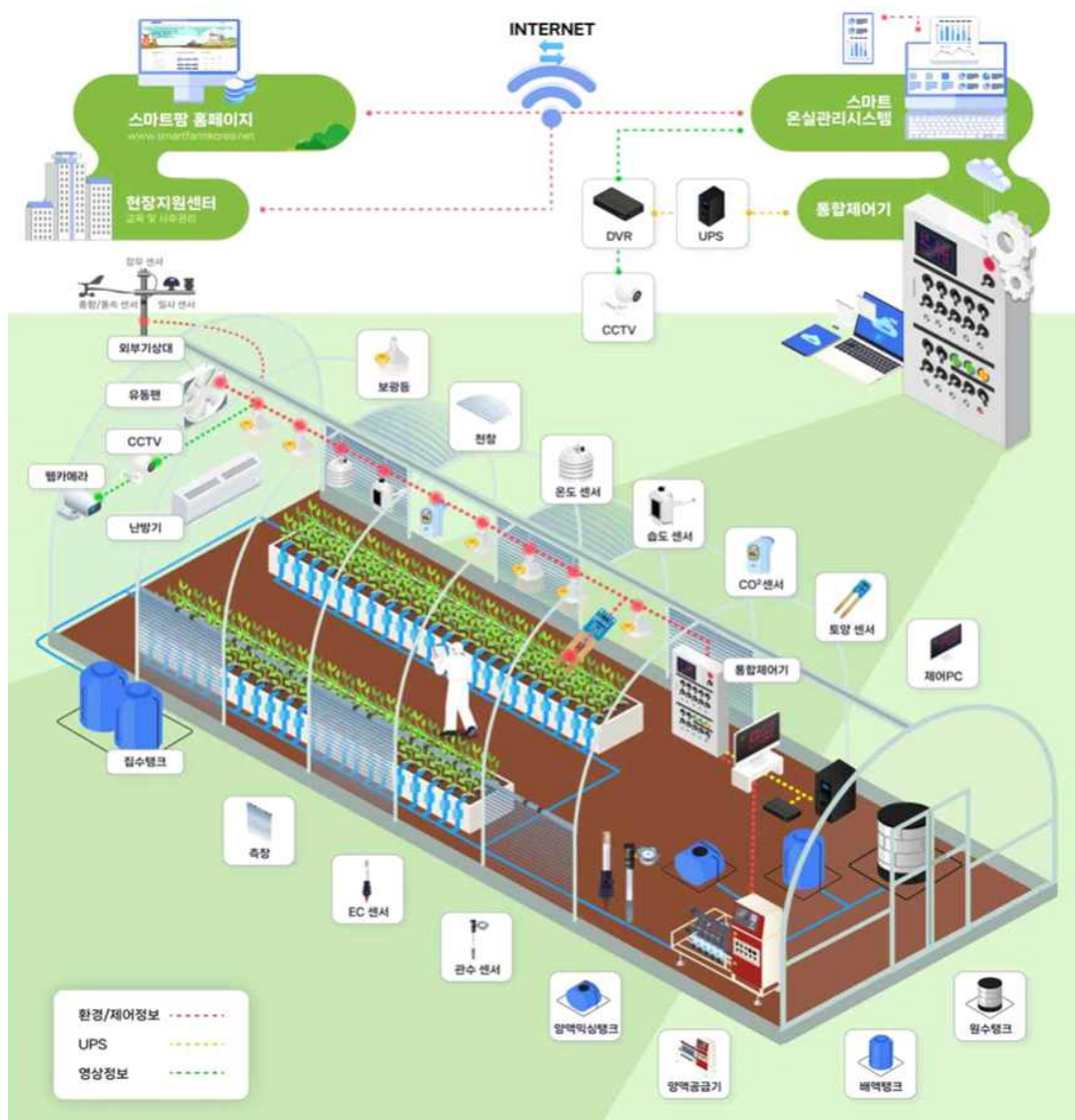
5. (5호) 충남 서산시,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1단계」

□ [개요] 충남 서산시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원에 46만평(15.2ha, 축구장 15개 크기) 규모의 단일시설 기준 국내 최대 스마트팜 건설

○ ICT 기술을 활용하여 작물 생육환경 원격관리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지능화된 농장에서 수익성 높은 과채류(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를 생산*

* 연간 방울토마토 199만kg, 완숙토마토 395만kg 생산 → '23년 기준 1인당 연간 토마토 소비량이 6.2kg인 점을 고려, 약 95만 명의 수요 소화 가능

【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개요 】



□ [총사업비] 1,300억원

□ [건설기간] '25.3월 ~ '25.7월('25.11월부터 수확)

□ [기대효과] 대규모 스마트팜 성공사례 도출 및 청년농 육성도모와 더불어 스마트팜 종합 콤플렉스 추진기반 마련

- 단일규모 국내최대 스마트팜으로서, 변동성 없는 생산량 및 품질 관리에 기반한 장기 고정가격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
- 고수익 스마트 농업으로 청년농 채용·육성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모델 구축
- 스마트팜 바이오단지 및 융·복합단지까지 조성하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2단계」 추진기반 마련

※ <참고>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충청남도)

☞ 충남 서산시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원에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 농업 동반성장을 위해 스마트팜 바이오단지 및 융·복합단지 건설

① (1단계) 스마트팜 생산시설 건설(~'25년) *본 프로젝트

② (2단계) 스마트팜 바이오단지 및 융·복합단지 건설(~'27년)

- (바이오단지) 스마트팜 생산시설 인근에 가공·유통·R&D단지 조성
- (융·복합단지) 스마트팜 교육시설(농업 선진국 네덜란드와 협업) 및 관광·주거시설 조성

【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프로젝트 조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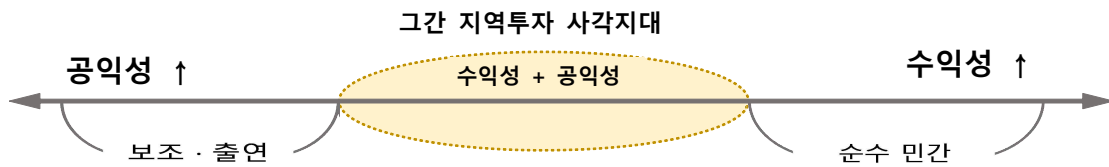


참고 2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개요

- **[목적]** 官 주도의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

☞ 실제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도모



- **[대상]** 수도권 소재, 사행성 사업 등 펀드 목적과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Negative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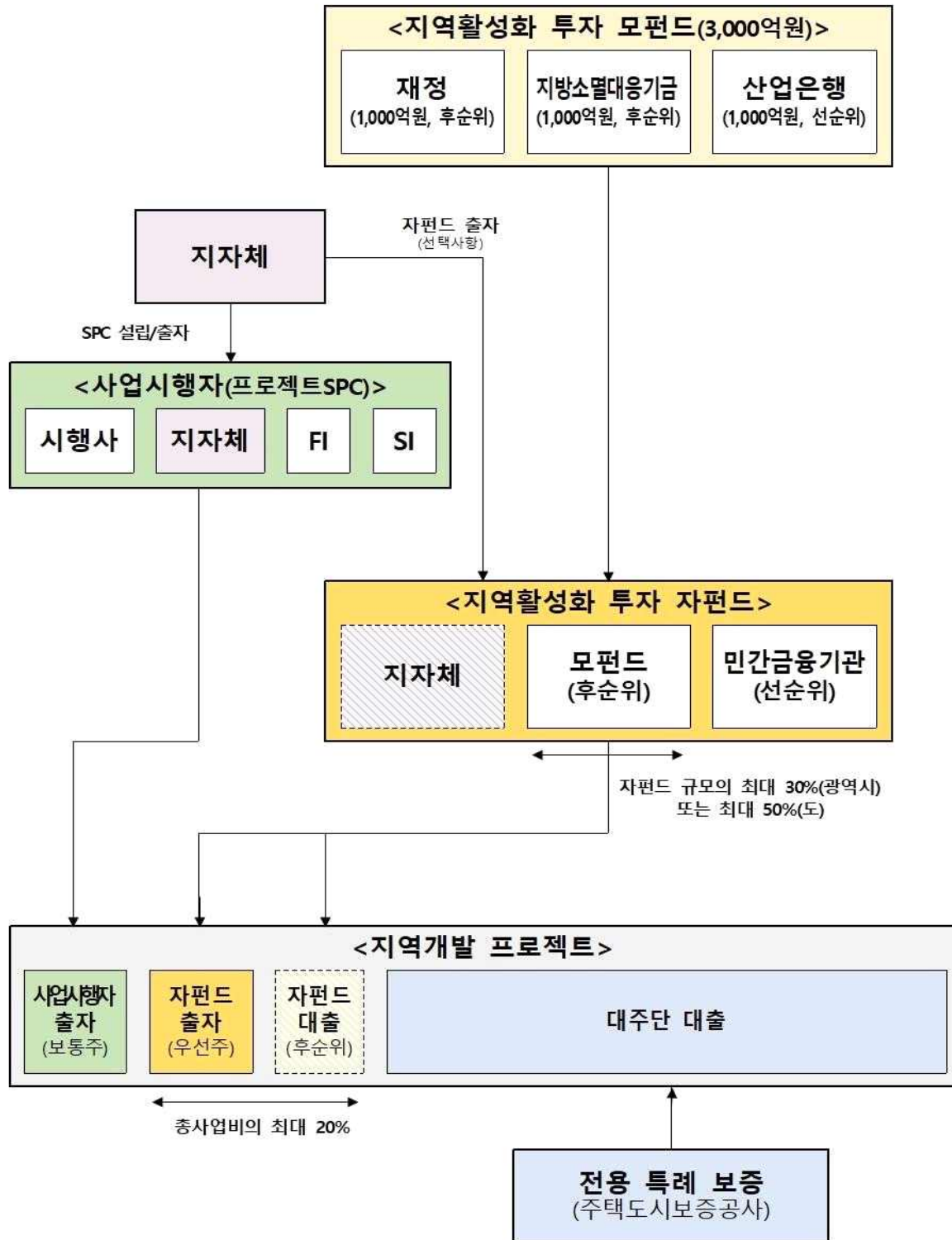
* (예) 복합 관광단지, 노후산단 재구조화, 대규모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등

- **[구조]** 정부가 모펀드를 조성(24년 신규 3,000억원)하고, 지자체·민간이 SPC 설립, 자펀드 결성, 대출 모집 등을 통해 추진

모펀드	▶ 정부가 마중물 투자(재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출자 ▶ 독립적인 투자심의위원회가 투자 여부를 결정
자펀드	▶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펀드 재원을 후순위 출자 ▶ 민간 금융사가 운용사로 LP(모펀드, 지자체(선택사항) 등) 자금 관리
프로젝트	▶ 민간시행사, 지자체로 구성된 사업시행자(SPC)가 프로젝트 추진·관리 ▶ 모펀드 등의 출자를 받은 자펀드가 프로젝트에 투자 ▶ 대주단(민간 은행권 등) 대출도 활용하여 자금 조달(특례보증 제공)

참고 3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 구조



참고 4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주요 내용

- **[모펀드 조성]** '24년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총 3,000억원 규모 조성
- * '25년(안)도 총 3,000억원 규모 조성 추진 중
- **[모펀드→자펀드 투자]**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 가능
- **[자펀드→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 이내이며, 우선주 출자(필수) 및 후순위 대출(선택) 형태로 가능

* 자펀드 투자기간: 20년 이내

【 모펀드 대비 레버리지 규모 】

- (모펀드 → 전체 자펀드의 최대 50%) × (자펀드 → 전체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최대 20%) = **최소 10배**

【 정부자금의 위험부담 역할 (3-tiers) 】

- (모펀드 內) 산업은행 출자보다 정부자금이 **후순위 출자**
- (자펀드 內) 민간투자자 출자액 일부(최대 20%)를 모펀드가 **우선손실 부담**
- (PF 대출 內) 민간대주단 대출보다 자펀드가 **후순위 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특례보증]** 다층적인 수익성 검증¹을 전제로 대주단 참여 독려², 수익성 보장³ 등을 위해 제공

* 1」 SPC 설립, 모펀드 운용사 투자 결정, 자펀드 투자자 투자 결정, 대출 심사 등

2」 은행권의 보수적 성향 고려 시, 특례보증 제공 시 참여 의사결정에 용이

3」 보증을 통한 리스크 경감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자금 조달 가능